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美 국채 10 년물 수익률 2% 갈  
까?..상승 전망 여전히 우세
  - ◇ (초점)-환율 오르는데 비드 뜨거운 단기  
크로스
  - ◇ (초점)-중간배당 규모 는다는데..역송금  
수요 달려/원 변수되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방주사 접종 내역, 감염 여부, 감염 뒤 회복 등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담은 '그린 패스' 도입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구글리엘모 망기아페인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30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50.3	0.0%	-5.6%	+6.5%	유로	1.1870	0.8%	-2.8%	+8.9%
100엔 대비	1,049.3	-0.8%	0.2%	+1.1%	엔	109.70	0.8%	-5.9%	+5.2%
유로 대비	1,366.7	-0.8%	-3.0%	-2.3%	위안	6.4566	0.2%	1.1%	+6.7%
위안 대비	178.18	-0.3%	-6.6%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935.47	-0.4%	14.1%	+7.2%
코스피	3,202.32	-1.6%	11.4%	+30.8%	나스닥	14,672.68	-1.1%	13.8%	+43.6%
코스닥	1,031.14	-2.3%	6.5%	+44.6%	S&P500	4,395.26	-0.4%	17.0%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52.87	-2.8%	-1.4%	+19.8%
국고채 3Y	1.417%	2.4bp	44.1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38%	-0.1bp	30.3bp	-14.5bp	미국채 2Y	0.188%	-1.2bp	6.7bp	-144.0bp
국고채 10Y	1.874%	-1.4bp	16.1bp	+3.0bp	미국채 10Y	1.226%	-5.6bp	31.4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3.95	2.6%	52.4%	-20.5%	한국 5Y	18.5bp	-0.1bp	-3.5bp	+0.1bp
금(현물)	1,813.58	0.7%	-4.4%	+25.0%	일본 5Y	17.0bp	0.0bp	2.0bp	-4.5bp
TR상품지수	3,008.31	2.4%	12.3%	+7.8%	중국 5Y	39.3bp	0.9bp	11.3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8월 2일(월)>

- IHS 마켓, 7월 한국 제조업 PMI(09:3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6:30)

### <3일(화)>

-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한은, 7월 1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 <4일(수)>

- 한은, 7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6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5일(목)>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1차관 정례브리핑(13:30)

### <6일(금)>

- 한은, 6월 국제수지(잠정)(08: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8월 2일(월)>

- 일본 7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10:45)
- 유로존 7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17:00)
- 미국 7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22:45)
- 미국 6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7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23:00)

### <3일(화)>

- 일본 7월 도쿄 CPI (08:30)
- RBA 통화정책회의 결과 (13:30)
-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6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23:00)
- 미국 6월 공장주문 (23:00)

### <4일(수)>

-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7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17:00)
- 유로존 6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7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22:45)
- 미국 7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23:00)

### <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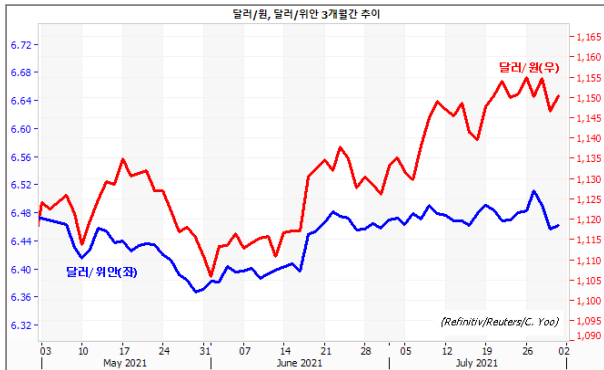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통화정책보고서 발행 (20:00)
- 미국 7월 챌린저 해고건수 (2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6일(금)>

- 일본 6월 가계지출 (08:30)
- RBA 통화정책 성명 발표 (10:30)
- 일본 6월 경기동행·선행지수 (14:00)
- 미국 7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실업률 (21:30)
- 미국 6월 도매재고 수정치·도매판매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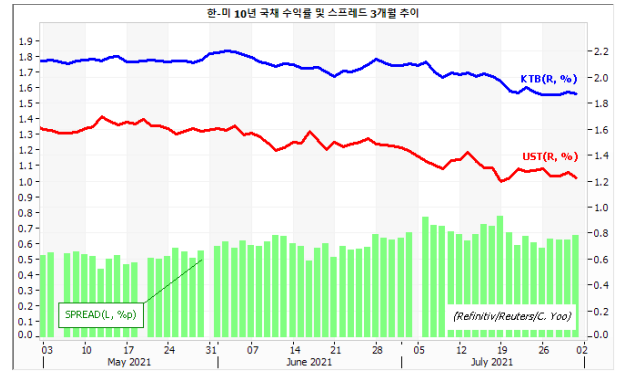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통화정책 이벤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살피며 방향성을 가늠할 전망이다.
- 지난주 환율은 중국 규제 리스크에 1150 원대 후반까지 연고점을 높였지만, 중국 당국이 시장 달러기에 나서면서 관련 우려가 완화됐다.
- 이런 가운데 사상 최대를 기록한 한국 7월 수출 실적은 일단 달러/원 하락에 우호적인 재료다.
- 주 초반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미국과 유로존 마켓 제조업 PMI 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후에는 미국 7월 고용지표 경계감이 변동성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월말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이번 고용지표는 미국 통화정책 관련 전망에 있어 핵심 변수다.
- 통화정책 이벤트로는 호주중앙은행과 영란은행 회의가 각각 4일과 5일 예정돼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채권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반복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 국내에서는 예상보다 매파적이라고 평가되며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을 키웠던 한국은행 7월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이 3일 발표된다.
- 또한, 한은은 7월말 외환보유액, 6월 잠정 국제수지를 각각 4일과 6일 발표한다.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3일 발표한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중국발 시장 혼란의 안정화 여부, 대내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이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쉽지 않은 장세다.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넘쳐난다고 하고 1년 FX 스왑 포인트는 500 전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원 환율은 연중 최고치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 부동산 난국에 직면한 정부가 사실상 한국은행에 SOS 요청을 하면서 8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늘어났지만, 미국 장기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 시장 전반을 살펴보면 여전히 돈이 많이 풀려 있음을 알 수 있고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정상화 역시 시동을 건 상황이다.
-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정책 정상화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만큼 타이밍의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경기 정점론이 현재 시장에서 세를 키워가고 있긴 하지만 정작 문제는 신용 부문이다.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는 국면에 예상치 못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ADP 고용 보고서, 5일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6일 비농업 일자리 및 실업률 지표 등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 델타 변이의 추이 역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 재료 중 하나다.
- 한국은행은 3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발표한다. 고승범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발표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원이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美 국채 10년물 수익률 2%일까?..상승 전망 여전히 우세**

런던, 7월 28일 (로이터) -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까지 오른다는 베팅은 올해 가장 확실한 거래로 여겨졌으며,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들이 연말까지 수익률이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고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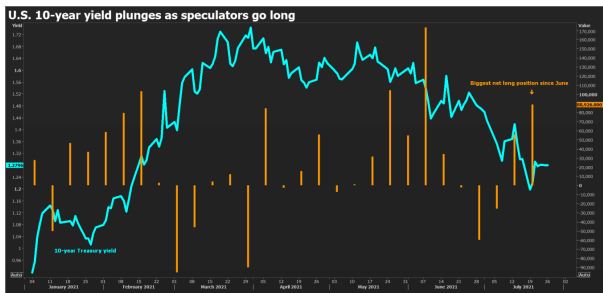
총 22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은 미국과 그 외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 10년물 수익률 급락은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제가 정점을 지나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팬데믹 부양책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채권시장 랠리는 더욱 거세졌고,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선물에 대한 순 롱 포지션은 6월 초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일에는 수익률이 3월 말 고점 대비 약 65bp 낮은 1.13%까지 밀리면서, 미국 국채 강세론자들의 의견이 갑작스럽게 지지 받는 듯했다.

하지만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자산운용사와 은행 23곳 중 15곳은 여전히 차입비용이 다시 2%를 향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5곳은 연말 1.5% 부근을 전망했으며, 나머지는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의 프라빈 코라파티 미국 금리 담당 전략가의 경우 연말 수익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같은 수익률 전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익률은 다른 나라 채권시장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독일과 영국의 국채 수익률은 그간 미국 국채 수익률을 따라 하락세를 보여왔다.

팬데믹 이전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3%에 근접했던 시기는 2016년뿐으로, 이때는 현재와 매우 다른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시기였다고 코라파티 전략가는 말했다.

투자자들은 현재 수익률 수준은 백신이 효과가 없고 연준이 매파적 정책 실수를 저지를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은 -1.14% 부근의 사상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지표들이 선진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 큰 반등 뒤 성장세가 완만하게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레피티티브 I/B/E/S에 따르면 2분기 미국과 유럽의 기업 실적은 1년 전보다 각각 80%에서 110% 정도 높으리라 전망된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고, 회사채 리스크 프리미엄은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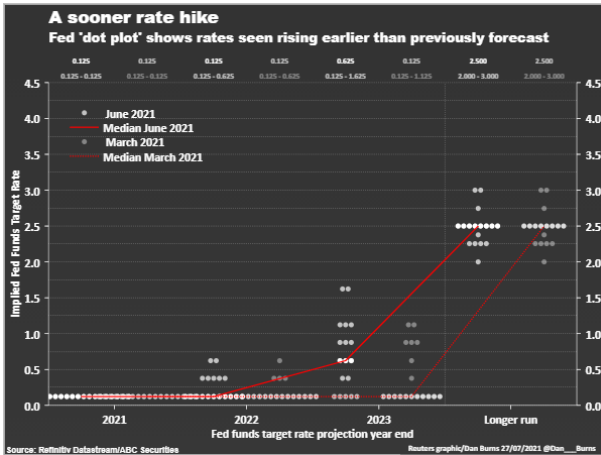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로이터 조사 전망치인 6%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골드만삭스는 또 미국 실업률이 현재 5.9%에서 연말 4.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크 카바나 미국 금리 담당 전략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근본적인 (경제) 배경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수익률 전망치를 1.9%로 고수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다.

코메르츠은행과 노르디아애셋매니지먼트는 수익률 전망치를 1.5% 부근으로 하향 조정했고, HSBC의 래리 다이어 미국 금리 전략 헤드는 1%를 고수하고 있다.

다이어 헤드는 연준은 결국 관리들의 금리 전망 차트인 '점도표'에서 암시된 것보다 더 도비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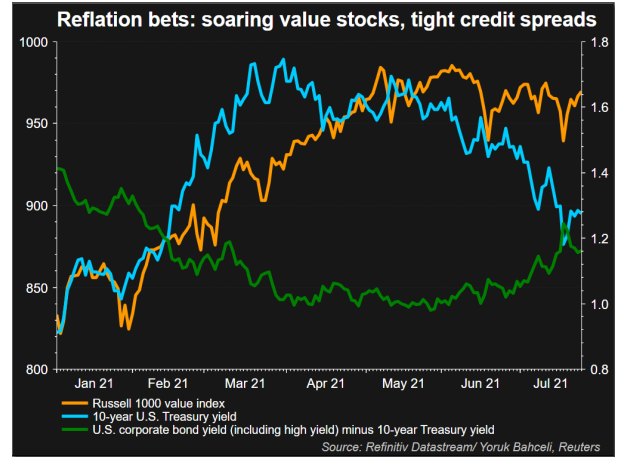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채권 매도세를 전망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다른 자산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블루베이에셋매니지먼트의 마크 도우딩 최고운영 책임자는 "10년물 수익률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2%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부양책 테이퍼링 논의가 변동성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강한 경제 기반이 시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실적 모멘텀이 이렇게 강할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은행, 석유와 같은 업종에 리플레이션 베팅이 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정크등급 채권이 강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셀인베스트먼트의 제라드 피츠포트릭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헤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1.50%~2.0%까지 오를 것이나, 만약 점진적으로 움직인다면 주식과 신용에 위험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라파티 전략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시장이 리플레이션은 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점)-환율 오르는데 비드 뜨거운 단기 크로스..달러 유동성 홍수·동결파 손절 등 해석 난무**

서울, 7월 28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연중 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가운데 FX스왑과 단기 통화스왑(CRS) 시장엔 오히려 강비드가 나오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달러/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오퍼가 쏟아지며 스왑포인트가 높리던 것과는 사뭇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달러/원 상승에도 FX스왑·단기 크로스 비드는 오히려 강해져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5분 현재 1년 CRS 금리는 전날보다 5bp 상승한 0.56%에 거래되고 있다. 1년 FX스왑포인트는 전날보다 0.60원 오를 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초강경 조치가 중국 증시의 대폭락 사태로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연중 고점을 경신하며 상승하고 있지만 FX 스왑과 CRS 시장의 비드는 그치지 않고 있다.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두드러질 때마다 중공업체 등의 오퍼가 쏟아지며 FX 스왑포인트 역전폭이 크게 확대되고, 단기 CRS 금리가 급락했던 이전 양상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전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7 일에는 최근의 스왑포인트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인식 속에 숨고르기가 나타났지만 28 일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1년 FX 스왑포인트의 단기 고점으로 인식됐던 3.50 원이 손쉽게 뚫린 후 어느새 4.40 원까지 올라서자 딜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시장참가자들은 달러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재정거래 관련 수요의 유입, 에셋스왑의 부재 등을 최근 가격 움직임의 기저 요인으로 꼽는다.

A 국내은행 스왑딜러는 "지금 시중에 달러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 다들 견디지 못하고 셀바이를 하는 상황"이라며 "처음에 FX 스왑 6개월물이 200 전에 갔을 때는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까지 다 따라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B 국내은행 스왑딜러는 "결국엔 달러 유동성의 홍수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며 "중공업체 선물환이 2년으로만 집중된 데다 통안채 입찰과 함께 외국인 재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이 단기 크로스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가철을 맞아 에셋스왑 태핑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고 말했다.

C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미국 역레포 시장에 여전히 8천억~9천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 은행들이 15bp 짜리 지준도 안하는 건 예금도 안 받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잉여자금이 넘친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이를 감안하면 역외 투자자들의 원화채 재정거래 이유가 설명이 된다"며 "국가신용등급 AA에 이 정도 시장금리면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8월 금리동결과 손절도 가세한 듯"

다만 이날 FX 스왑시장과 단기 CRS 시장의 움직임에는 기존 포지션의 손절이 가미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이날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돌고 있다는 것이다.

D 국내은행 운용부장은 "오늘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국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딱히 구체적인 현안도 없는데 이런 회견을 한 것은 결국 한국은행에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E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중공업체 선물환매도가 나오면서 FX 스왑포인트가 빠지는 경향이 강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보통 환율이 오를 때 스왑포인트도 같이 올랐다"며 "이번에 우리도 환율과 함께 스왑포인트가 올라가는 건 특수한 시장 상황과 수급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결과는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게 없다"며 "결국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그동안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봤던 곳들이 바이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손절하는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기준금리가 8월에 인상되면 11월 인상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고 이 경우 3개월이나 6개월, 1년물까지 다 사는 게 맞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그동안 반대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 (초점)-중간배당 규모는하는데..역송금 수요 달러/원 변수되나

서울, 7월 30일 (로이터) 이지훈 · 박예나 기자 -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호실적에 따른 중간 · 분기배당

지급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로이터가 8월 중간·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은 최소 2조원이다. 이는 작년(1.6조원 추산)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적 호조로 기업들이 중간배당을 처음 실시하거나 배당지급액을 늘린 결과다.

이 중 18일 지급 예정인 삼성전자 외인 배당액은 약 1.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대자동차, KB금융, 하나금융지주는 1천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외인 배당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4월 결산배당 당시 로이터 조사에서는 최대 11.6조원 상당의 역송금 수요가 추산된 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내 배당소득 지급규모는 약 54억달러로 집계된 바 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그대로 역송금되지도 않는 데다, 마 거래나 분산 송금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외인 배당이 그대로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외인 배당 수급이 직접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친 적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7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4조원 넘게 순매도해 3개월째 유출 흐름을 이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을 포함한 주식 관련 수급은 여전히 부담이다. 최근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이끈 핵심 수급은 다른 아닌 주식 관련 역송금이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 모멘텀이 분산된 상황에서 역내 수급 영향력이 커지고 무엇보다 양방향 수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수급 무게중심의 일시적 변화에 따른 시장 반응은 커질 수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막대한 유동성 유입에 기댄 국내증시에 대한 고평가 인식 속에서 한국은행이 정책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밝힌 만큼 외인 자금 유입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8월 중 달러/원 환율의 완만한 상승을 전망했다.

※ 주요 상장기업 외인 배당 지급 규모와 지급일 (30일 현재)

회사명	예상 외인 배당액	배당 지급일
SK	214억원	8/20
우리금융지주	281억원	8/19
삼성전자	1조3801억원	8/18
현대모비스	347억원	8/11
SK텔레콤	824억원	8/10
현대자동차	1010억원	8/10
KB금융지주	2149억원	8/6
하나금융지주	1438억원	8/6
현대중공업지주	250억원	8/12
S-Oil	876억원	8/27
총액	2조1192억원	-

\* 로이터가 기업 공시 등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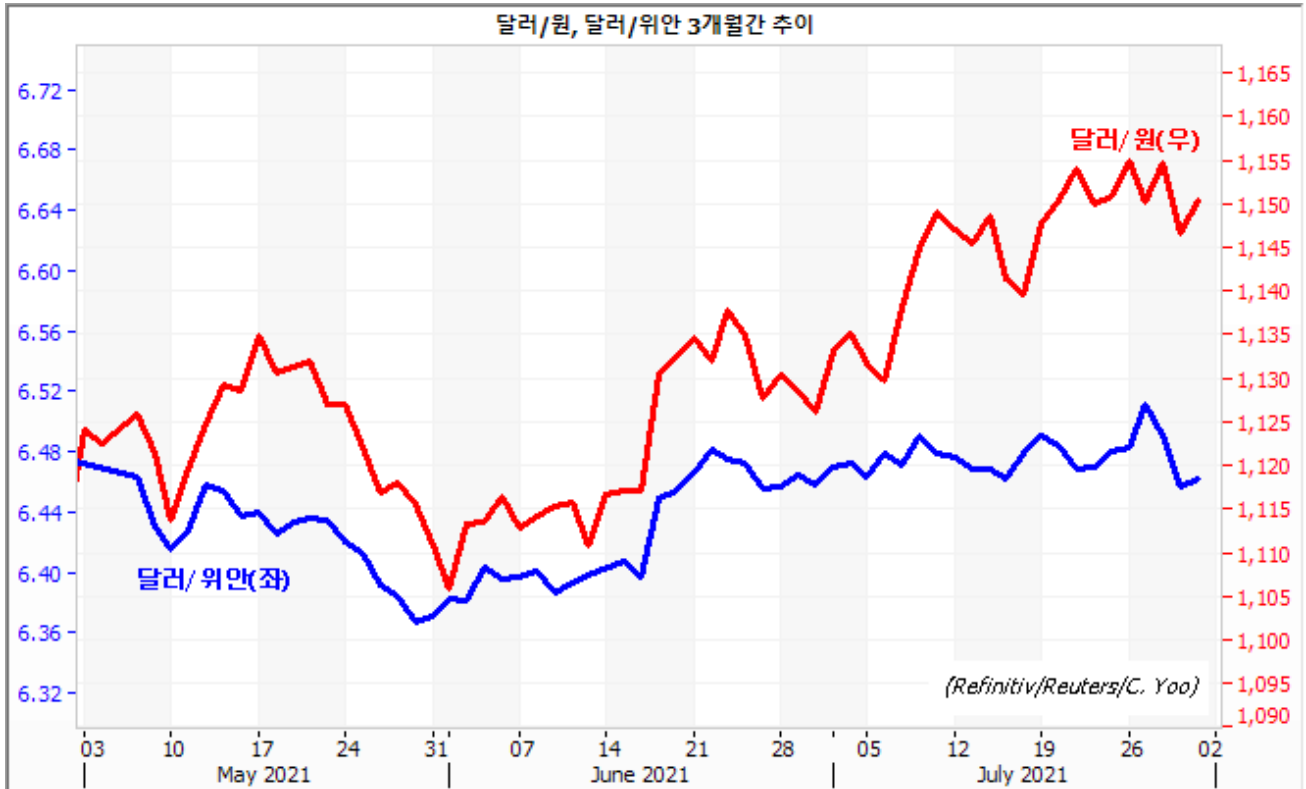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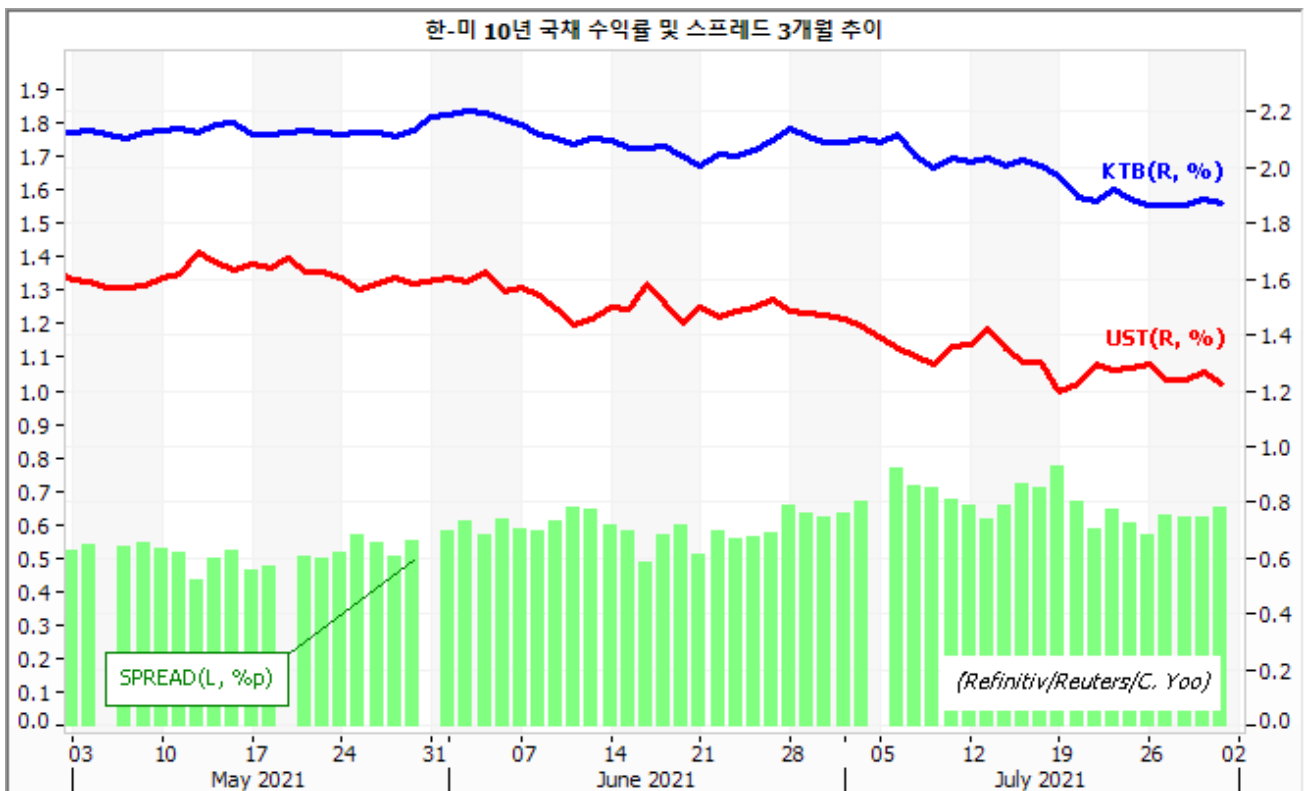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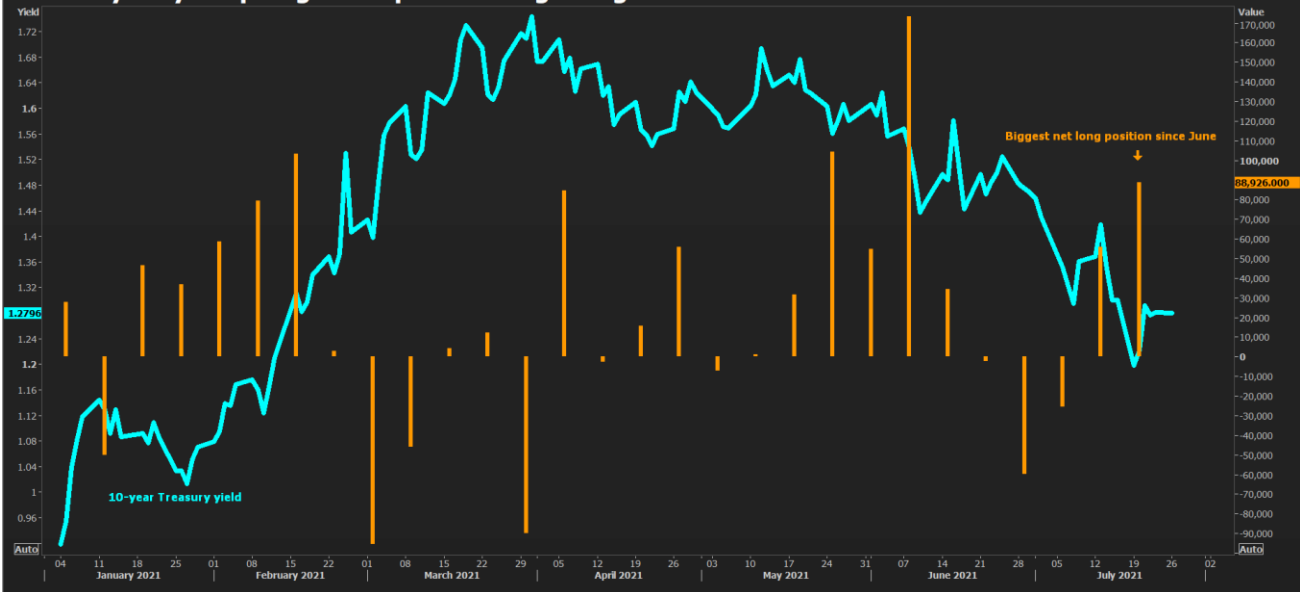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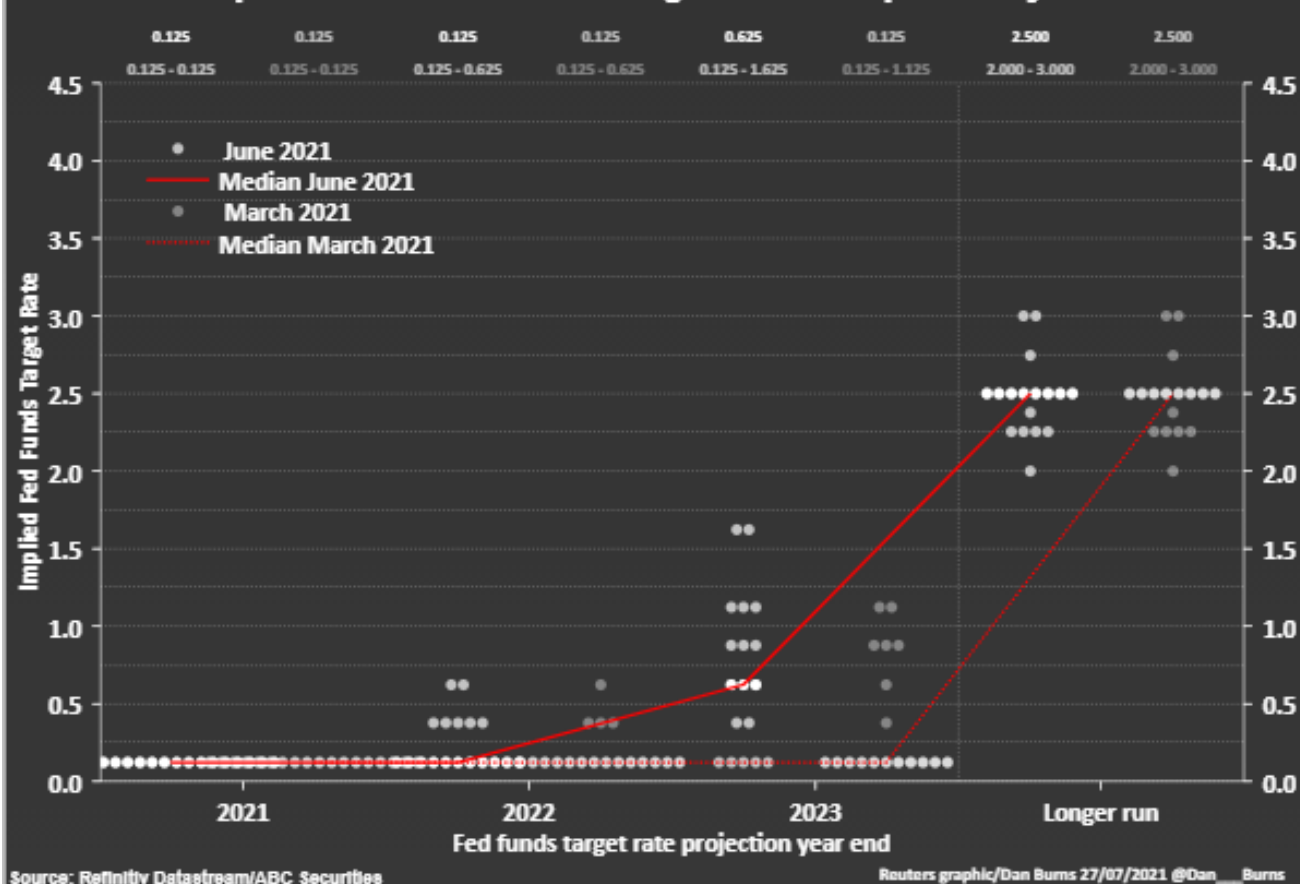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U.S. 10-year yield plunges as speculators go l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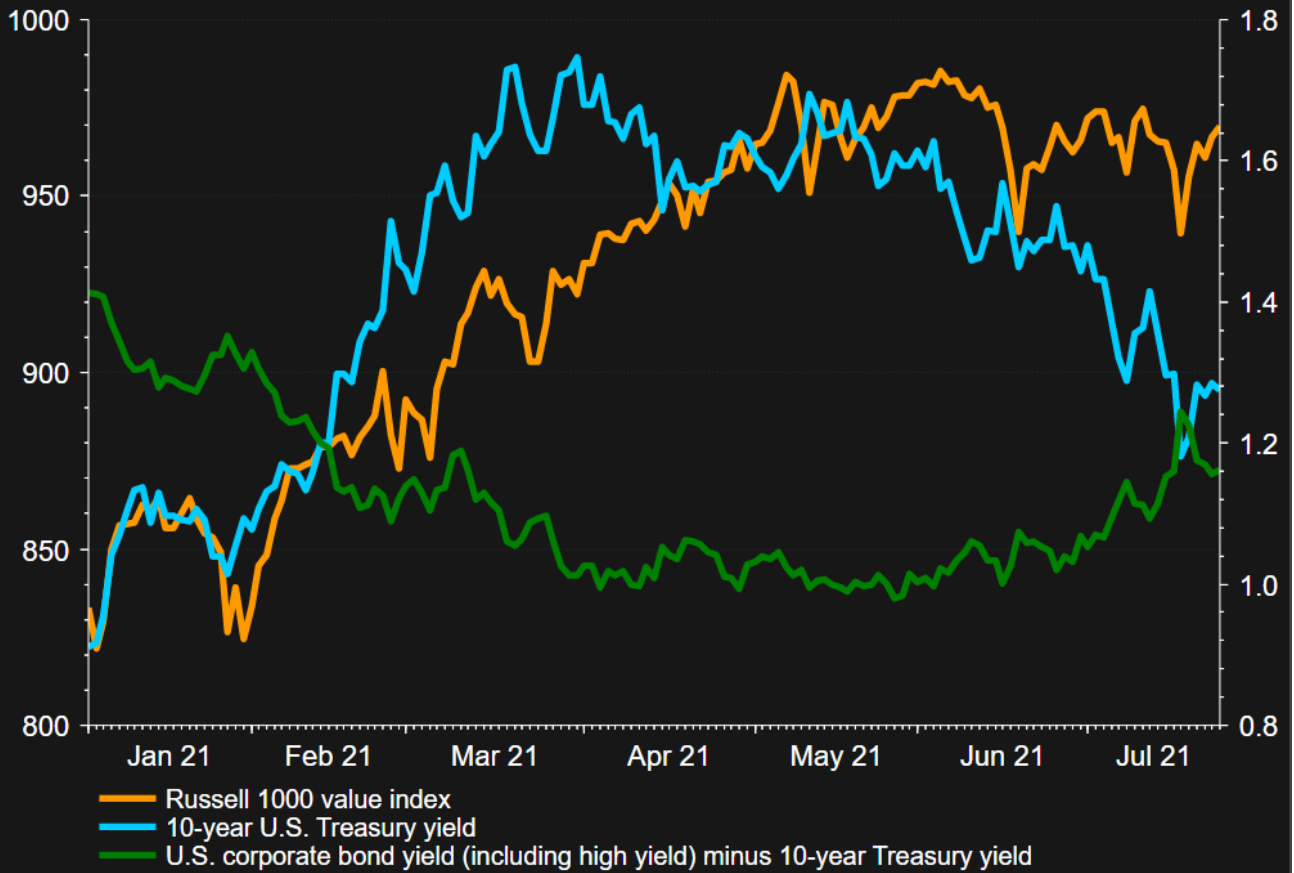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A sooner rate hike Fed 'dot plot' shows rates seen rising earlier than previously forecast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Reflation bets: soaring value stocks, tight credit spread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Yoruk Bahceli, Reuter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주요 상장기업 외인 배당 지급 규모와 지급일 (30일 현재)

회사명	예상 외인 배당액	배당 지급일
SK	214억원	8/20
우리금융지주	281억원	8/19
삼성전자	1조3801억원	8/18
현대모비스	347억원	8/11
SK텔레콤	824억원	8/10
현대자동차	1010억원	8/10
KB금융지주	2149억원	8/6
하나금융지주	1438억원	8/6
현대중공업지주	250억원	8/12
S-Oil	876억원	8/27
총액	2조1192억원	-

\* 로이터가 기업 공시 등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합산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